

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

정 옥 자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요즘 우리 사회의 삼대 철용성의 하나라고 불리는 법조계의 몸부림을 보고 있노라면 또 하나의 철용성으로 지목되는 대학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법조계의 문제는 정치의 시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과 부패의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비교적 가시적이며 그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분명해 보이므로 오히려 희망이 있다면, 대학사회의 문제는 주체들의 복잡성과 이질성,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개혁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대학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과제에 대하여 대학인 스스로 요지부동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작금의 대학사회는 난파선에서 살 길도 찾지 못하고 은신처만 찾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다. 배가 침몰하는데 그 속에 안주처가 있을 리 없고 죽어가면서 기득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옛말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고 하였는데 대학사회는 아직 변통(變通)을 필요로 할 만큼 궁하지 않아서 일까?

대학의 현주소를 알기 위하여 대학의 과거 주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 대학이 성균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성균관은 학문을 전수하는 강학(講學) 기능과 성현에게 제사지내는 제향(祭享) 기능을 함께 갖고 있었다. 강학기능은 오늘날의 대학과 같

지만 제향기능은 오늘날의 대학에는 없는 것이다. 성균관에 문묘(文廟)를 두고 공자를 위시한 유학의 성인, 철인, 현인들과 우리 나라의 선정(先正)들을 제사하는 목적은 그 분들의 삶을 사표로 삼아 자신도 거기에 닮고자 하는 원망의 표현이다. 그 엄숙한 제의를 통하여 자신이 누추한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교육의 장치였다.

또한 성균관에서 행하는 강학 내용은 문(文), 사(史), 철(哲)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이었다. 여기에는 '문'이란 문장학이며 '사'란 역사이고 '철'이란 철학인데 철학이란 용어는 서양학이 들어온 후에 사용된 신어이고 당시에는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이라 하여 경학(經學)이라 하였다. 그 순서도 경학이 먼저이고 다음이 역사, 문장학을 마지막에 두었다.

경전에 제시된 진리는 시간의 변화에도 변치 않는 항상성을 가졌다고 보아 날줄로 인식하고 역사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씨줄로 인식하여 양자가 교차되면서 인간의 삶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양자를 상호 보완하여 터득한 진리를 표현하는 문장학이 같은 비중으로 중요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대 대학인 성균관의 학문체계는 인문학

중심이였다. 이는 농경사회의 시대사상이던 유교의 학문 체계에 다름이 아니다. 유학은 익명성과 유동성, 도시화가 배제되어 안정된 농경사회의 시대사상이다. 마을공동체에서 협업에 의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간화 작업을 계속한 것은 그 시대의 생존전략이었다. 또한 조선사회가 지향한 문치주의, 즉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평화공존의 이념을 지키려는 시대정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가 오늘날의 학문체계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94년 갑오경장이다. 변화된 학부관제를 보고 당시의 지식인은 성균관을 기계와 어학의 하위 기관으로 놓은 점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 결과 문묘를 다른 기관으로 부속시킨 자체가 패류(悖謬)며 인문학이 잡기(雜技)의 학문에 뒤지고 있으니 분서갱유(焚書坑儒)나 위학(僞學 : 거짓 학문)의 화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결국 전통 인문학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성균관의 운명과 함께 그 위상이 격하되고 교육의 중심축이 이학이나 기술학 등 잡학(雜學)으로 옮겨 갔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학계의 기본체계는 근대 학문체계의 골격을 이루게 되어 오늘날의 대학교육의 성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전통학문의 인문주의는 개화론의 방향성에 침몰되고 당시의 시무(時務 : 시급한 일)로 시대적 요청이 되었던 기술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 밀려났던 것이다. 그 결과 전통시대에는 잡학에 속하였던 외국어가 인문학의 범주로 편입되어 오늘날 인문학은 문, 사, 철의 순서로 편제되게 된 것이다.

갑오경장이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 아래 소수의 개화파가 동조하여 서구적 제도문물의 전환이었다는 사실은 그때 이루어진 학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대의 인문주의를 뒤집어버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서구문물의 일방적 수용

이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1세기 동안 그 흐름은 지속되었다. 실재 그 후 전개된 일제의 강점과 광복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에서



6. 25의 민족상잔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다운 삶이나 그것을 위한 인문학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치이거나 거주장스러운 존재였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제국주의를 자행하던 국가들이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피지배민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고 그들이 설정한 일정한 틀 속에 도구화시키는 것이라면, 일제가 갑오학계에서 짜여진 교육의 틀을 변함없이 고수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광복 후에도 기본적으로 서구 기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순응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세계관의 영향하에 그것은 더욱 공고한 위상으로 굳어졌다. 이 또한 제국주의 시대에 선도국가들의 생존방식을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필요한 학문체계였다.

그리하여 대학은 인간교육을 외면한 체 서양학문의 전초기지가 되고, 인문교양의 중심부인 인문대학은 그 정체성이 분명치 못한 상태로 외국어 내지 외국문학을 인문학의 본령이라고 착각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전통시대 인문학의 계승주체로서 인간교육을 포기한 인문대학의

위상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대학이 당면한 첫째 문제는 지난 1세기 동안 고착되어 온 제국주의적 학문체계를 깨는 일이다. 이는 학문영역 이기주의의 내지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극복이 지난하다. 대학이 계속 앓고 있는 고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둘째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이 경제논리로 재단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는 일이다. 대학의 기본임무가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원론이지만, 이 초보적인 원론마저 깨면서 대학이 연구의 장을 상실하고 있다. 교육의 상품화라는 자유경제원칙은 교육을 양으로만 재단하고 질을 가능하는 잣대를 상실함으로써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 IMF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대재벌을 보다 큰 재벌화하고 노동자들을 지난 세월 다져온 노동운동의 공도 없이 다시 저임금과 초과 노동에 몰아넣고 있듯이, 대학이 경제논리에 의하여 편제될 때 사학재단들의 횡포 또한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인들 자신의 반성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고 대학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그 누구보다도 대학에 몸담고 있는 대학인들 자신의 무사안일과 이기주의에 기인한다는 자성 없는 대학개혁은 무망하다. 대학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 대학교수 정년 조정문제 역시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라 몇 가지의 검증장치를 거쳐 재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이 전문인력의 양성이란 과제에만 배달리는 현상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학은 미래의 국가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인재의 인격형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재 아무리 좋은 두뇌와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례를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무수히 확인한다.

지난 30년간의 군부통치는 우리 사회의 문치주의의 전통과 인문적 교양이라는 저류마저 말라버리게 하였다. 그후에 들어선 문민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지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논리를 대입하여 실패하였다면 이제는 보다 전형적인 교육의 틀을 짜야 할 때다.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전통시대 교육이 정(正)이라면 19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은 반(反)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육은 합(合)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대학이 갈 방향은 앞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학 교육의 체계를 미래의 생존전략과 맞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 방향 설정이 시급한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대국의 논리인 세계화나 신자유주의를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다. 이제 국가의 방향 설정을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는 자각이 앞서



야 한다.

앞으로 대학교육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눈앞의 과실을 따는 일이 당장 급하지만 그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치는 작업이 있어야 하듯이,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여야 하듯이 기초학문 없는 응용학문이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번번히 알면서도 대학마저도 과실을 따려고만 서둔다. 응용학문에 대한 투자는 공룡화하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는 말뿐이라는 말이다.

기초학문 중에서도 인문교육은 전통시대 인문학의 빛속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육은 물

론 교육 전체의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편향적으로 된 교육의 틀을 제대로 짜는 길은 전통시대 인문학의 위상을 다시 찾아 자리 매김하고 그 인성교육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생존전략인 과학 기술 정보산업 등 시무와 여러 응용학문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품질문제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도 아니고 온실도 아니다. 대학도 나뉠의 자기변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시점에 와 있다. 대학인 자신의 한계성을 깨지 않으면 더욱 가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학이 구조조정 당할지도 모른다. 대학인 스스로 뼈를 깎는 통렬한 자기반성에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다지며 살신성인의 학생정신으로 대학개혁을 대학인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한**

정옥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이래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저서로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역사에세이』,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역사에서 희망 읽기』 등이 있다.